

- 충남도민 100% 안전보험 가입 완료
- 홍수·태풍·지진, 폭발·화재·붕괴 시 혜택
- 최대 2000만원까지 전국 어디서든 보장



## 대한민국 해양생태·新산업 충남이 주도한다

(부남호 역간척) (해양치유산업)

### 양 지사, 해양산업 구상 제시

“네덜란드서 역간척 성공 확신”  
부남호, 해양생태계 복원 박차  
갯벌 복원해 288억 소득 창출  
국내 생태복원 선도모델로

서산-태안-보령 잇는 서해벨트  
해양·산림 연계한 모델 구축  
충남을 ‘세계 해양치유 메카로’



물을 유통하기로 결정했고, 해수 유통 3개월 만에 휘어스호 물의 총인(TP·수중인의 총량) 농도가 0.4mg/l에서 0.1mg/l로 줄어드는 등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사는 “부남호도 휘어스호처럼 해수 유통을 시킬 경우 수질 개선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갯벌 복원에 따라 어족 자원 증대, 어민 소득 향상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담수호 수질 개선으로 수질개선 비용 110억원이 절감되고 연간 288억 원의 어민소득이 기대된다”며 “이로써 2500억에 달하는 해수유통 초기 투자비는 6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 양 지사는 독일 우제돔을 모델로 삼아 충남형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비용 절감과 45조 원의 경제적 효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양 지사는 “우제돔은 인구 대부분이 해양치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양치유를 위한 연 방문객이 33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뛰어난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자원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태안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자원인 ‘모아’를 발굴하는 등 산업화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도와 태안군은 이를 확장해 올 하반기에는 산림과 연계한 해양치유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또 “2022년 개최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기반으로 서해안 벨트를 구축, 충남이 세계적인 해양치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2

/도정신문팀



“장애 체육인의 꿈이 비상이 되는 계기되길”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2일 태안군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꿈이 새롭고 꿈을 꾸며 널리 비상하길 바란다”는 응원을 전하며 입장하는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friend2@korea.kr

### 환황해 해양 실크로드 개척하는 충남도

#### 도정 톨아보기

백제의 해양문화 DNA흘러  
해양문화 新산업으로

#### 환황해권 해상실크로드 부푼 꿈

백제가 강력한 해상왕국을 건설한 시기는 1600여 년 전 근초고왕(346-375) 때다. 장보고의 해상활동 시기보다 무려 450년 앞선 것이다. 그 시기 백제는 서남해안의 모든 해상력을 장악한다.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중국의 요서 지방과 산둥 반도, 왜의 규슈 지방에까지 백제의 세력이 뻗었다. 백제는 도도한 고대 해상왕국이었다.

충청남도가 얼마 전 해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백제의 해양진출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청사진에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해양생태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또 소금과 머드·갯벌·해사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 담겨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특성상 휴양형 요양과 체류형 치료가 필요한 만큼 숙박, 쇼핑, 관광 등 지역소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자원으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무궁해 신산업인 것이다. 독일과 다른 차별화 전략은 해수욕장 주변의 빼어난 해송 숲을 통한 산림치유와 해양치유의 복합 모델 구축이다.

충남도의 포부는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 유럽 못잖은 세계 해양치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먼 훗날 그림이 아니다. 경험과 자원은 귀중한 자산이다. 태안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자원인 ‘모아’를 발굴하는 등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보령해양머드축제는 해양치유산업의 서해안 벨트 구축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국내 최초의 부남호 역간척과 해양치유산업은 무궁해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간다.

오래전 해상왕국 백제의 진취적 기상은 지금 충남의 환황해 진출의 노릇이다. 1600년 전 백제의 해양왕국의 꿈이다. 유럽의 해양산업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해양강국의 미래다. 충남의 법고창신의 정신이다. 환황해권 해상 실크로드는 더는 꿈일 수 없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대한민국의  
영웅  
여러분께 드립니다

충청남도 보훈공원

관람 안내  
평일 | 화~금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 토/일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휴관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입장은 오후 5시 30분 까지 가능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흥여공원로 65 Tel 041-635-1090

# 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본격 추진

### 버스비 무료·보훈행사 정례화 전국 최초 119 이송예약제 등 “숭고한 희생정신 기억할 것”

충남도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방안을 확대·강화하고 충남보훈공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3·1절, 광복절에 이어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도 매년 위문 활동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 정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332명 중 75세 이상 233명이 7월부터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내년 7월부터 75세 미만 독립유공자 유족 99명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부터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미망인 및 수권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품(온누리상품권 5~10만원) 금액을 상향 추진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공원 및 보훈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하고 도 대표 독립운동가 상징물을 제작·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충훈탑 참배자를 위한 ‘집례관’ 운영 ▲기획전시실 전시 확대 및 다목적 개방 ▲누리집 구축 ▲나라사랑 그림그

리기·글짓기대회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정례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보훈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훈관과 보훈공원을 역사·의식·보훈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대표적인 현충 공간으로 조성해 나아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를 기존 생존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332명에서 유족의 배우자 183명을 포함해 총 515명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독립유공자 맞춤형 특별이송 서비스인 독립유공자 119이송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041-635-4242

# ‘충남술 Top10’ 뽑는다

### 전통주 우수성 입증·확대 계기 7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

충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충남술 Top10’을 선정·지원한다. 충남술 Top10 선정은 타 시도 대비 전통주 관련 자원이 풍부한 충남 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판매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도내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면천 두견주와 도 지정 무형문화재 5개소, 대한민국 식품명인 주류분야 6개소,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충남 농산물을 활용한 양조 상품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양조기술 기반을 다진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모신청은 우리술문화연구원(막걸리학과)에서 오는 7월 10일까지 이메일

일(soolschool@naver.com)로 접수 받으며, 선정된 양조장에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전통주점 협의회와 연계해 홍보 및 판촉행사가 진행되며, 충남술과 음식을 조합한 홍보 시음회가 두 차례 진행된다. 또 술꾸러미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사하고, 서포터즈단을 모집해 소셜네트워크(SNS)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과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충남 Top10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박병희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술 Top10 선정·홍보로 충남술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양조인의 참여로 충남술의 경쟁력과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활력과 041-635-4080



마을공동체 통해 자연과 사람 예술 꽃피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9일 아산시 송악면 예꽃재마을을 찾아 공동체 귀촌 모델 성공 사례 및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을 청취했다. 예꽃재마을은 평균 연령 39세의 젊은 전원마을로, 사교육을 줄이고 마을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도예·풍물·생태체험·요가 등의 체험을 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이다. ●공동체정책관 041-635-3666

## 도정만평

설인호



### 농기원 자재 개발 신제품 15종 신속 공급 기반 마련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제품 15종에 대해 12개 육묘업체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실시권 계약은 자체 개발한 우수 신제품에 대한 도 농업기술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농가에 신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한 신제품 판매 규모는 ▲딸기 2품종(킹스베리, 속향) 245만여

주 ▲국화 10품종 241만여 주 ▲백합 3품종 119만여 구이다.

신제품 생산·수출 등을 원하는 농가는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육묘업체에서 모종을 구입해 재배하면 된다. 딸기 계약 업체는 논산딸기육묘농조합, 피씨에프영농조합법인, 씨니팜영농조합법인, 호트팜농업회사법인, 노성농업협동조합, 논산시청 등 6곳이며, 국화는 월명팜농조합법인, 맑은샘, 하늘화훼종묘, 베스트덤, 에버팜농업회사법인 등 5곳, 백합은 네이처농업회사법인 1곳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045

# ‘천혜의 유부도’ 해양 생태계 보전 방안 구상

### 체감형 생태관광 기반 구축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박차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충남의 최남단 섬’인 유부도를 찾아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 방안 등을 구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감형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도 논의됐다.

유부도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으며, 2020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일대에는 칠게와 벗들갯지렁이, 서해비단고둥과 같은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 총 95종의 저서동

물을 비롯해 어류 125종과 기타 수산생물 및 무척추동물 60종이 살고 있다. 또한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6종, 넓적부리도요 등 국제적 멸종위기 13종 등의 철새가 찾기도 한다.

정부와 도, 서천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자연의 보고인 유부도를 지키기 위해 유부도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부도 남단 제방을 제거, 갯벌 면적을 확대해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지사는 “유부도는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기수역에 위치한 도내 최남단

의 중요한 섬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8년 국가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됐고, 이듬해 람사르습지에 등재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잠재된 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도와 서천군이 노력해 2020년 서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착장 및 방문자센터 등이 건립되면 더 나아진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방안 마련 ▲유부도 선착장 연장 및 정기노선 운항 등을 건의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4

## I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⑮

### 방기다, 뱅기다 - ‘반기다’

#### 혀의 움직임 최소화 방기다·뱅기다로 받음

배웠던 시절이 있었다. 보리밭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던 시절이 있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서는 벼들은 파랗게 일어서는데, 여름으로 가는 햇살이 길기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해 추수한 양식은 겨우내 떨어졌다. 이른 봄날을 수놓던 썩이며 냉이며 달래며 산나물도 이미 썩어 오래다. 등쪽에 붙은 허기를 붙잡고

보리밭만 바라보던 시절,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릿고개라 했다.

“친중 오래비가 왔다고 방갑다구 손은 잡던면 낮빛은 그게 아녀. 방갑기루야 한이 없었지먼 가난한 살림이 대접할 게 없으께(친정 오빠가 왔다고 방갑다고 손은 잡았지만, 얼굴은 그게 아니야. 반갑기루야 한이 없겠지먼 가난한 살림이 대접할 게 없으니까).”

“보리밭두 구연 시절였으께, 볼판이나 여름엔 손이 와두 뱅길 수가 없

었어(보리밭도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봄이나 여름엔 손님이 와두 반길 수가 없었어).”

끼니때가 두려운 시절이었다. 숟가락 하나라도 딸고 싶은 시절이었다. 가는 손님이 반갑고 오는 손님이 두렵던 시절이었다.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었다는 하얀 어른신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길 어딘가에 보릿고개의 추억이 높다랗게 걸려 있었다.

충청도 사람들은 편하게 말한다. ‘반기다’ 보다는 ‘방기다’가 쉽다. ‘산골’을 ‘상골’이라 하고, ‘산 것과

죽은 것’을 ‘상 거랑 죽은 거’라 한다. 공연히 혀를 움직이며 불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반갑다’라고 쓰고 ‘방갑다’라 읽는다. 말할 때는 한발 더 나아가 ‘방깁다’가 된다. 만덕이는 만덕이가 되고, 용깁이는 용깁이가 되고, 선영이는 ‘스영스님’이가 되는 이치와 같다.

세상이 바뀌면 말도 바뀐다. 배가 부르니 보릿고개가 잊혀지고, 표준어가 확장되니 충청말이 사라진다. 충청 사투리는 이제 철지난 세월 속 추억처럼 떠다니다가 머잖아 이 땅의 노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막 뿌리를 박은 모들이 푸르게 솟아

나고 있다. 저 6월의 푸른 벼 포기들은 여름 지나 가을이 오면 풍성한 알곡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처럼 충청의 어른들도 충청말의 알곡을 쏟아놓고 가을 속으로 떠날 것이다. 저 가난했던 시절의 말의 알곡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 이 나라의 말의 터전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충남이 해결”

도·주금공·농협은행 ‘맞손’  
5천만 원까지 이자 3% 지원  
상시접수·적격자 선착순 선정

충남도가 이달부터 사회초년기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앞선 및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청년의 경우 연 3.5%의 대출 금리 중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

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은행 상품이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 대출상당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어디까지 알고 왔니?”

Q : 대출 취급 은행은 어디인가요?  
A : 농협은행 중 충청남도 영업점만 해당됩니다. 지역 농축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라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Q : 사업 지원 중 이사를 가면 계속 지원되나요?  
A : 충남도내 거주 및 공고문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대출받은 농협은행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Q : 개인 부담비율과 만기 후 연장 여부는?  
A : 고정금리 3.5% 중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므로, 0.5%는 자부담입니다. 향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만기 후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알립문자와 우편서비스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 신청 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공고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지원이 가능한지요?  
A : 신청접수 때는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진행됐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계약한 주택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 신청 후 선정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5 /손유진 syj0319@korea.kr

## ‘점농어양식’ 실험 착수

완전 양식·산업화 확인 목표  
점농어양식 가이드라인 제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서해 연안 가두리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점농어(사진) 양식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점농어는 서해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지만 몸에 점이 있다. 최대 1m까지 성장하는 점농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여름철 유통으로 인기가 있다. 점농어는 특히 천수만에서 주로 양식하는 우럭이나 송어보다 고수온에 강하고, 겨울철 천수만 최저 수온인 2℃에서도 잘 견딘다. 도매가도 1kg당 1만 2000원으로, 우럭보다 20% 가량 높다.

이번 실험은 서해 연안 가두리양식장에서의 점농어 완전 양식과 산업화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해상 가두리양식장과 육상수조 담수에 점농어를 동시 육성해 성장도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 기술을 검증·개발해 기술 표준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달 29일 평균 체장 10.4cm, 무게 97g의 점농어 치어를 서산 창리 천수만에 8948마리, 보령 원산도 가두리양식장에 1만 412마리, 아산 지역에 위치한 수산업체 육상수조에 5000마리를 입식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가두리양식장에 입식한 점농어의 생존율과 성장률·고수온기 성장 및 월동 가능성을 시험하고, 육상수조에서 양식한 점농어와 비교한다. 내년에는 해역별 및 육상수조 점농어 생존율과 성장도·폐사율 등을 살피고, 성장 단계별 특성과 질병 여부 등을 분석한 뒤, 천수만 점농어 양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9

##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

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 27명이 재직 중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599

## 최대 2000만원...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자연·사회재난, 각종 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도민 생활안전망 구축 ‘기대’

충남도민 ‘안전보험’ 가입률이 100% 목표치를 달성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누구나 자연·사회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은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양승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정책과 041-635-5622

## 고려인삼 컨트롤타워 구축, 세계·명품화 시동

도, 인삼산업발전위 출범  
경쟁력 강화·재도약 발판 마련

충남도가 고려인삼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명품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충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 인삼위는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 15명으로 구성, 현안과제 의견수렴 및 정책 수립 등 고려인삼 산업발전을 위한 현안 대응 활동을 벌인다.

도는 지난 2월 고려인삼 종주지의 명성을 되찾고 인삼산업 재도약을 위

해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인삼위 역시 이 조례에 근거해 출범했다.

인삼산업계에서는 인삼산업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고려인삼 재도약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실제 생산·유통·가공 주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적 정책방향 결정이 어려웠고,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현안과제 대응 및 이해당사자간 조정 등에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인삼위는 향후 인삼산업 컨트롤타워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현장 중심 과제를 도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 주체의 참여·소통으로 정책 확산 및 시너지효과를 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삼위를 중심으로 GAP 인증을 모든 인삼농가에 확대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전 인삼주기(Life Cycle)에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삼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7743

#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저출산 위기극복을 사회 모든 분야와 함께하는 공감의 장  
국민이 직접 의사를 반영하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

## 저출산 극복에는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가입니다

2019. 6. 26.(수) 10:00~17:00  
덕산 리솜스파캐슬

전문가·도민 1000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정부안규정제TF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중고계 학계·산업계  
청년·신혼부부, 임신·육아 중인 부모 등

1부 개회식  
정책특강  
폐쇄토론회  
저출산 극복 공동 추진 협약식

2부 500인 정책토론

3부 도지사(회) 토크콘서트  
폐회식

충청남도

# 친환경 고추농사로 '대박'...소멸 위기 농촌마을의 '부활'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 아산 농업회사법인 ㈜제이에스  
마을 가구 80%가 법인에 참여  
비닐하우스로 병충해·잡초 극복  
작황 좋아 올 매출 3억원 목표



(주)제이에스 오일섭 대표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살펴보고 있다.

잘 키운 농촌융복합산업체는 마을 하나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아산에 소재한 '제이에스(대표 오일섭)'가 대표적이다.

제이에스는 아산 선장면 일대마을 3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마을 전체 가구 수가 42가구 인 점을 감안했을 때 10가구 중 8가구가 제이에스와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제이에스의 대표상품이자 일대마을의 특산물인 '친환경 고춧가루'다. 병충해에 약한 고추를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희소성에 힘입어 올해는 매출 3억 원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운영도 안정적이다.

일대마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고추를 재배한 것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을 준비했던 몇몇 농가들의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부터 제이에스의 대표작을 맡고 있는 오일섭 대표는 두레일대마을 역사의 산증인이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일손도 부족해지잖아요. 우리 마을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소득 작물을 키워야겠더라고요. 병충해에 약해서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로 알려진 고추를 무농약으로 기르면 경쟁력이 있겠다 싶었어요. 무농약 도전 2년

만에 고추를 생산했고, 어렵도 없었고 다들 손사래를 치던 마을 어르신들도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두레일대마을농조합과 2013년에 농업회사법인까지 설립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인 셈이죠."

모든 친환경 농업이 그렇듯 친환경 고추 재배 역시 병충해, 잡초와의 싸움이다. 일대마을은 비닐하우스로 이를 극복했다. 한냉사가 설치된 2미터 높이의 측창, 출입문, 포충기, 환풍시설 등 고추를 재배하는

하우스는 전국 최고 설비를 자랑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해충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하우스 문마다 걸려 있는 자물통은 일명 '자물통고추'라는 별명을 만들어냈다.

비닐하우스 특성 상 고추는 12월 까지도 수확한다. 친환경 고추는 통돌이 세척과 거품세척을 통해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온제습 상태에서 건조된다. 일반 고온건조기보다 두 배 가량 비싼 저온제습건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타민C 파괴가 적고 고춧가루의 색도 더욱 곱다.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건조추는 제분하기에 가장 적당한 수분함량인 13~15%로 조절한다.

까다로운 재배와 공정을 바탕으로 두레일대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는 전통식품인증, 유기농인증, 유기 가공인증, 해설팀인증 등 각종 인증이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고춧가루에 비해 비싸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00여명의 소비자가 매년 고정적으로 고춧가루를 예약구매하고 있고 주요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도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난다. 최근에는 학교급식에도 고춧가루를 납품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생산량이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두레일대마을 친환경 고춧가루 인기가 전례지나지 않아 재배와 생산공정을 배우기 위한 견학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농장을 다녀간 방문객만 1000여명에 이른다. 아예 두레일대마을에 정착한 사례도 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12가구가 친환경 고추농사를 위해 두레일대마을로 전입했다. 농업회사법인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두레일대마을은 공동요양시설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였었던 작은 농촌마을의 부활이다.

오일섭 대표는 "친환경고추농사로 주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마을에 전이 없는 활기가 생겨나고 있다"며 "두레일대마을이 하나의 계기가 돼 아산시 전체로 친환경고추농법이 확대되고,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거듭나 아산 농민들의 주요 소득창출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지원”

도, 벤처 창업·혁신 거점 추진  
‘충남형 창업벨트’ 구축 나서

충남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혁신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등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구본영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등과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벨트 구축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창업성장벨트는 중진공 충청연수원을 중심으로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충청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 벤처

기업 지원 기능을 집적화하는 새로운 창업·혁신성장 거점이다. 도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기업 생애주기별, 기업별 원스톱 맞춤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진공 충청연수원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와 중진공, 천안시, 박완주 의원 등은 이날 협약을 통해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벨트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지원 ▲개별 사업 운영 지원 노력 ▲관련 인프라 확충 협력 ▲연계 공동 협업 사업 추진 등에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KTX천안아산역에 C스테이션 조성을 추진 중이며,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창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천안 직산의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벨트와 천안아산역의 C스테이션, 천안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 되면, 충남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5

## 2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

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  
6개 시·군 실적도 ‘최고’

충남도는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고용노동부 주관 시상식이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대책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도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포하고 연내 추진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기관



이성일 일자리정책팀장, 신동현 경제통상실장, 이수명 주무관(사진 왼쪽부터)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민선7기 일자리 대책 등 단체장의 의지, 일자리 목표 달성도 및 일자리 대책 창의성, 예산·조직 등 역량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도내 6개 시·군도 ▲최우수상(천안·서천·예산) ▲우수상(논산·청양) ▲특별상(당진)을 수상하는 등 충남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1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낮춘다

보증료율 낮추고 이자감면 확대  
930개 사회적기업 혜택 기대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도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KEB 하나은행 등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보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신보와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차례로)이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도는 신보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대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는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

## 또 12개국 바이어 초청 제품 4568만\$ 수출상담

충남도는 지난 5일 예산 덕산리쉴스파캐슬에서 대전충남코트라(KOTRA) 지원단과 함께 ‘2019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다변화 방안 모색 및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가공·생산·제조 24개 업체 ▲생활용품 19개 업체 ▲미용제품 6개 업체 ▲가전·전자제품 5개 업체 등 총 54개 도내 중소기업과 중국·일본·미국·베트남·싱가포

르·러시아 등 12개국 바이어 30명이 참석했다.

도는 특히 지난 3~4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소비재수출대전’에서 도내 업체 제품에 관심을 보였거나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어들을 이번 수출상담회에 초청해 총 456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날 54개 기업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지속적인 거래를 제시 받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동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수출상담회 이후 실질적인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2



# “채용 더 늘릴까요” 소상공인 대비된 사회보험료 ‘반색’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첫 지급

1분기 지원 신청 심사 결과  
9700명에 24억여 원 지급  
사업체 1곳당 월평균 22만 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9만 7000원

영세업체 고용 위축 막고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 기대  
7월부터 2분기 접수 시작  
신규 채용 시 변경 신청 필요



지난 1월 열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왼쪽부터 여덟 번째)가 15개 시·군 단체장과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업주 보험료 지원액(근로자 1인당)

구분	사업자부담(원) 163,800	보험요율(%)	부담비율(%)		비고
			국비(공단)	지방비	
국민연금	78,750	4.5	90~40	10~60	두루누리사업 지원금 차액을 지방비 지원
고용보험	15,750	0.9	0~60	100~40	
건강보험	57,050	3.26	0	100	지방비 100% 지원
산재보험	12,250	0.7			

※ 사업자부담 증가 가능(보험요율 인상 등), '20년 이후 지방비 부담비율 탄력적 운영

지난 7일 충남도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결과로, 1분기 신청금액이 해당 사업장에 입금됐다. 도내 13개 시·군이 우선 참여한 1분기(1~3월) 신청 및 선정 결과, 도내 대상 사업장이 3700곳을 넘고 수혜 근로자 수는 1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 금액은 24억 7000여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지난 금요일(6월 7일) 입금된 지원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진희 원장이 충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덕분에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았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도내 사업장의 90%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 등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 1366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사업장 및 근로자

에 대한 심사를 실시,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금은 총 2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체 1곳당 월평균 22만 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9만 7000원이다.

1분기 지원 대상자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4억 9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401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3671개 사업장 11억 5000만 원 ▲국민연금 3668개 사업장 7억 9000만 원 ▲고용보험 3357개 사업장 1억 7000만 원 ▲산재보험 3359개 사업장 3억 6000만 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달 말부터



김진희 원장

각 사업장에 지급 중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가입 첫해엔 각각 90%와 80%를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4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상공인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다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 차액을, 건강보험은 50~100%, 산재보험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획기적이다. 따라서 종목별 지원금액도 건강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인터뷰에 응한 어린이집 원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정보가 부족해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신청 후 자격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는지 혹은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많다”면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홍성군 흥복읍에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주도 “근무 인원이 평균 7~9명 사이다 보니 생각보다 지원금액이 컸다”며 “지원이 지속된다면 채용 인원을 늘릴 생각도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2분기 신청은 7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분기와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천안 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지속가능한 충남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 홍보와 부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과 근로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8 /손유진 syj0319@korea.kr

## 저출산 극복 도민 머리 맞대다

26일,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개최  
사전등록·아이디어 제시 ‘환영’

충남도가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사회 전 분야에서 함께 공감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공감과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26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사회지도층 및 정책대상자·관계자 등 1500여 명을 초청해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1971년 102만 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2만 6900명까지 급감하면서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 출생아 수, 출산율 등의 모든 인구동향 통계 수치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도는 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공동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미혼남녀·신혼부부·부모 등의 정

책 대상자들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정책특강·패널토크·저출산 극복 협약식이, 2부에서는 정책발굴을 위한 분임토론회, 3부에서는 도지사와의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또한 로비 공간에는 저출산 정책 홍보부스 10개동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홈페이지(www.chungnam.go.kr/debate/main.do)를 통해 사전등록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저출산 극복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33 /손유진 syj0319@korea.kr

### 제4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2019. 6. 11.(화) ~ 9. 4.(수)

공모분야	· 시, 에세이																									
신청기간	· 2019. 6. 11.(화) ~ 9. 4.(수) 18시까지, 86일간																									
신청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공모주제	· 인권침해 · 차별사례,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존중 문화확산																									
결과발표	· 2019. 9. 30.(월)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상내용 (단위: 점별)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시상</th> <th>인원</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초등부(아동), 중고등부(청소년)</td> <td>최우수</td> <td>1명</td> <td>500</td> </tr> <tr> <td>우수</td> <td>2명</td> <td>600</td> </tr> <tr> <td>장려</td> <td>5명</td> <td>500</td> </tr> <tr> <td rowspan="2">일반부</td> <td>최우수</td> <td>1명</td> <td>500</td> </tr> <tr> <td>우수</td> <td>2명</td> <td>600</td> </tr> <tr> <td></td> <td>장려</td> <td>7명</td> <td>700</td> </tr> </tbody> </table>	대상	시상	인원	금액	초등부(아동), 중고등부(청소년)	최우수	1명	500	우수	2명	600	장려	5명	500	일반부	최우수	1명	500	우수	2명	600		장려	7명	700
대상	시상	인원	금액																							
초등부(아동), 중고등부(청소년)	최우수	1명	500																							
	우수	2명	600																							
	장려	5명	500																							
일반부	최우수	1명	500																							
	우수	2명	600																							
	장려	7명	70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도립요양원’...안전한 노후 책임진다

도립요양원 명칭 변경 알려  
시설·장비 보강해 ‘안전’ 강화

충남도는 지난 5일 보령시 소재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새 명칭 사용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존 생생꿈마을요양원에서 도립요양원으로 명칭 변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현판식은 도립요양원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수덕’이 주최·주관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

사가 참석자들에게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라는 명칭을 공개하고, 축하 떡을 나눴다. 또 현판식 이후 요양원 활동 프로그램인 팔찌 만들기 시간을 통해 직접 만든 팔찌를 입소 노인에게 선물하고, 요양원을 둘러보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2007년 8월부터 ‘생생꿈마을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도립요양원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립 위상에 걸맞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도는 도립요양원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수덕을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1일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설 운영을 위탁했다.

양 지사는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시설 증개축과 장비 보강, 화재안전장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요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과 041-635-4216



어린이들이 먹는물 수질검사 실습에 열중하고 있다.

## “먹는 물 내 손으로 검사해요!”

청소년 보건환경체험교실 ‘인기’  
3-12월, 총 12회 진행 중

12회에 걸쳐 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체험교실에서는 ▲식중독과 질병 ▲식품분석 실험 ▲미세먼지와 환경 ▲환경보전과 물의 중요성 ▲생활 환경 유해요인 등을 주제로 실생활 중심 강의와 흥미로운 체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체험교육 신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공문 접수하거나 교육부 주관 누리집 ‘진로체험 꿈길(ggoomgil.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유일한 보건환경 분야 공공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유익하고 내실 있는 체험 교육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11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운영 중인 보건환경체험교실이 도내 일선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5월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 결과 총 5회 동안 126명이 교육을 받아 지난해 연간 교육 결과인 4회 44명을 상반기 중 뛰어넘었다.

보건환경체험교실은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실습형 체험교육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총



도립요양원 현판식 후 기념촬영 중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왼쪽부터 여덟 번째)

## 농아인 사회적 ‘인식 개선’ 결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  
김 부지사, “차별·편견 깰 것”

충남도는 지난 8일 홍성 흥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3회 충남 농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농아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화합·단결을 다짐하는 농아인의 날 행사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흥성여중, 농캔디가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야외 행사장에서는 부대행사로 각종 체험부스를 마련했으며, 흥성고

진솔무용예술단의 특별공연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사진)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차별과 편견의 문화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공공건물 등의 접근인증제도 도입 등 장애인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3

## 동물위생시험소·달마시안제육국 닭 진드기 살충제 개발 ‘맞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승범)는 지난 4일 시험소 내 회의실에서 달마시안 제육국과 ‘닭 진드기 살충제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 진드기 천연 살충제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 동물위생시험

소는 천연 살충제 효능·효과 시험 및 임상 시험, 잔류물질 시험 등을 주로 수행하고, 달마시안 제육국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천연 살충제 성분으로 도내 재배 토종식물을 활용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공동 소유, 천연 살충제 개발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도 협력한다.

●동물위생시험소 041-635-7002

### 간추린 도정



#### 산불피해 아픔 “나누면 반”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일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 공원과 조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굴삭기 1대와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45명이 함께했다. 봉사단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변의 화재 잔해물을 제거하는 한편, 화재 이후 새로 설치된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하고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후원받은 생필품(수건·양말·세제·소금) 1000여 점을 전달했다.

●충남자원봉사센터 041-635-1365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충남도가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도청과 산림자원연구소, 15개 시·군 등 17곳에 설치되며, 100억 원의 방제예산을 투입해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대책본부는 시·군과 사업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8명을 배치, 산림 내·외와 생활권 주변의 공원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외래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방제작업이 어려운 밤나무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항공방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2

#### 복지시설 무료 지하수 검사

도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음용 지하수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6만 7700원이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는 지난달 말 ‘수수료 규정’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도내 148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료를 직접 채수할 경우, 그동안은 거리에 따라 4~12만 원의 출장 여비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저 출장 여비인 4만 원을 일괄 적용해 부과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83

#### 충남에서 ‘버스킹 즐기자!’

충남도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10개 시·군 관광명소, 전통시장, 공원 등 열린 공간에서 총 66회에 걸쳐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에서는 이번 공연을 위해 4월부터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팀을 모집·선정한 바 있으며,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되 공연팀에는 회당 적정 공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정책과 041-635-3816

#### 장애도 뛰어넘는 즐거움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5일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제2회 충청남도장애영유아체육대회’를 개최

했다. 체육대회는 장애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안전을 고려하여 장애물 달리기,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는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평생 운동습관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 장애인체육회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장애영유아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튼튼교실’을 운영 중이다.

●충남장애인체육회 041-635-0087

#### 노인학대 예방 ‘앞장’

충남도가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다짐하고, 노인 인권 의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 공경·관심을 통한 학대 없는 사회 만들기를 결의했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으로 노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 예방 홍보·캠페인을 수행하는 ‘노인학대 예방 도민참여단’ 시·군별 대표 15명에게도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했다.

●노인복지과 041-635-4222



#### 미용대회 출전 전원 수상

충남도립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 1학년 재학생 20명이 지난달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 열린 제7회 충남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에서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학생들은 대학부 경연에 참여했으며 ▲헤어부분 ▲네일 ▲메이크업 ▲피부 등 4개 분야에서 금상 11개, 은상 6개, 동상 2개를 각각 수상했다. 특히 헤어 펌 와인딩에 출전한 이희선 학생은 대학부 분야에서 대상(도지사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충남도립대 041-635-6736



# “더운 여름 도서관으로 물놀이 오세요”

충남도서관, 수경시설 개장  
매일 지하수 100톤 공급

충남도서관은 도서관 내 녹지공간에 조성한 수경시설을 본격 개장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수경시설은 넓이 420㎡, 깊이 29cm 안팎이며, 바다 분수, 우산 분수, 팜트리, 대형 파라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 나들이 장소 및 휴식기 유아용 물놀이 시설로 마련한 수경시설은 유아용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를 위해 홍성군에서 개발한 지하수 100톤을 매일 새로 공급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되 부족할 때에는 수돗물을 함께 사용하고, 위생 유지와 감염병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평일 이용 시간은 6·9월 오후 2~5시, 7·8월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이

며, 주말과 휴식기(7~8월), 휴관일 등 자세한 일정은 충남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나병준 관장은 “충남도서관 수경시설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나기 명소이자 유아기부터 도서관을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 공간”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22



지난해 충남도서관 내 수경시설 운영 모습

## ‘도정 거버넌스’ 인식 확산...협치학교 운영

김부지사, “협치 감수성 높이자”  
충남도는 도정 거버넌스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여성·청년·각종 위원회 등 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 충남 협치학교’를 운영한다.  
첫 순서로 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임용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협치 감수성 제고 및 도정

거버넌스 인식 확산 유도 등을 위한 특강 및 기본 교육이 진행됐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혁신과 협치의 시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도정을 수행하자’를 주제로 특강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는 지난해 실패박람회, 지역혁신포럼, 국민 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며 “올해는 도에서 충남공감마루 구축을 통해 각종 도민참여사업을 추진, 도민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2019년 충남 협치학교는 총 5개 과정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다음 교육은 내달 2일 도와 시·군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공동체정책관실 041-635-2054

## ‘자살 없는 충남’ 함께 만든다 도·약사회, 자살예방 ‘한뜻’

충남도가 자살 위험 없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약사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박정래 충남약사

회장과 ‘생명사랑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충남약사회는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생명사랑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충남약사회는 또 약봉투 제작 시 생명사랑 문구를 포함하고, 자살 위험사례 발견 시 정신건강

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며 범사회적 자살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43

## 바닥에서도 희망은 꽃 핀다

가 생활 동안 5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그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잡화점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삼인조 쯤도독이 30년째 비어 있는 교외의 한 잡화점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잡화점에 숨어 있던 그들에게 나미야 잡화점 주인의 이름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지에 적힌 진지한 고민상담 내용을 보고 답장을 해주게 된다.  
편지에 답장을 해주다 쯤도독 삼인조는 고민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30년 전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들은 편지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아가던 쯤도독

삼인조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본인들의 삶에서도 희망을 발견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이 해주는 조언이 상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 사람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 구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인 나미야 잡화점에서 애뜻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며 가슴 따뜻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책이다.



한아름  
충남도서관 사서

### 사서들의 서재



《히가시노 게이코 저, 현대문학, 2012》

‘2012년 12월 국내 번역 출간된 이래 6년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을 차지’, ‘국내 누적 판매 100만 부 돌파’, ‘최근 3년여 동안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빌려 본 책’. 이 책에 붙는 수식어이다.  
책의 저자인 히가시노 게이코는 1985년 ‘방과 후’로 제31회 에도가와 란포상을 수상한 후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20여 년의 작

## 남이네 가족



※월든 '남이네 가족'은 도민과의 도정 소통을 위해 충남문화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기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경계를 허무는 젊은 예술가들...“서로에게 큰 영감”

## 문화인·화무악(畫舞樂)

문화재단 선정 신진예술가  
김가을·허지윤·김진희 씨 활동  
협업 통해 폭넓은 예술세계 뽐내

예술만큼이나 융합에 열려 있는 장르가 있을까. 공동작업을 뜻하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전에 없던 다양한 표현과 감동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이라는 하나의 장르 자리잡아가고 있다.

충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무악(畫舞樂)’은 충남문화재단이 지난해 선정한 신진예술가 3명으로 구성된 다원예술단체다. 미술학박사로 실험적인 동양화를 그리는 김가을 작가를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허지윤 씨(아산시교향악단 악장),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김진희 씨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단체인 것처럼 그림과 무용,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새



화무악 단원들이 지난 5월 선보인 전시에서 관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개인활동에 주력해오던 30대 여성 예술가들은 충남문화재단 선정 신진예술가로서 교류하며 서로의 작품을 눈여겨보게 됐다. ‘선율’과 ‘움동’이라는 공통의 소재에 집중했던 세 명의 예술가는 김가을 작가의 제

안으로 본격적인 공동 작업을 시도했다.

첫 콜라보레이션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동굴에서 벌인 퍼포먼스였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김가을 씨의 동양화 설치물을 배경으로 김진희 씨가 춤을, 허지윤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음악과 미술, 무

용을 하나로 엮어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연주를 바탕으로 무용과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면서 이들의 시도는 지역 예술계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김가을 작가는 “공동 작업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며 “작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음악이나 무용, 미술에서 보완하면서 보다 폭넓은 표현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각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두 번째 합작전시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천안 한뼘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블루웨이브(Blue wave)’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동양화가의 미학적 선과 바이올린의 선율, 한국무용의 곡선이 만나 푸른 물결로 번진다는 느낌을 표현했다.

김가을 작가의 작품은 전시실의 벽뿐만 아니라 너른 공간을 매웠다. 뒤가 비치는 얇은 천에 그려진 작품을 사이로 김진희 씨가 한국무용을

선보였다. 허지윤 씨의 바이올린 연주까지 어우러져 정적인 미술관이 하나의 공연무대로 재탄생했다. 미술관 한 칸에서는 김가을 작가의 아이디어로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김가을 작가는 “일반적인 전시가 아니고 전형적인 무대도 아니어서 관객들이 자칫 어색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 놀랐다”며 “미술전시공간에서 전에 없는 활력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원예술단체 화무악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작가는 “지금은 저희 셋이지만 충남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업을 해 나가고 싶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이어나갈 젊은 신진예술가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문화행사



### 함신익, 심포니송

■일시 : 6월 26일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 심포니송의 클래식 공연이다. J.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G. 로시니의 ‘월리엄 텔 서곡’, 이흥렬의 ‘꽃구름 속’ 등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들로 구성된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지휘자 함신익을 필두로,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바이올리니스트 홍예린, 소프라노 장유리, 첼리스트 이수정 등의 협연이 함께 진행된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0-2913

### 논산시민공원 버스킹

■일시 : 6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주말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논산 시민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쇼, 밴드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선보인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끝을 논산에서 장식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소 : 논산 시민공원



###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시 : 6월 20일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아 바르샤바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가 계룡을 찾는다. 폴란드 대표 실내악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쇼팽, 멘델스존, 드보르작의 세계에 빠져보자.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 042-840-3707

### 피카소 색깔놀이

■일시 : 6월 11일~23일

■예술감성 향상! 색과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들의 감성발달에 좋은 놀이체험! 3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체험교실로 회화 당 동반자 포함 36명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장소 : 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문의 : 041-930-3423



###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일시 : ~6월 22일  
■버럭질 최강에 무뎠던 봉식과 변덕쟁이, 씩씩본능의 경상도녀 필레. 콩나물 값 50원에서 시작한 이 싸움은 제사상에 올릴 정종 병나발 사태까지 이어지고, 급기야 이혼을 선언하는 필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공연 ‘당신만이’가 아산에 상륙했다.  
■장소 : 아산시 평생학습관 공연장  
■문의 : 041-534-2634



### 오페라 ‘투란도트’

■일시 : 6월 26일  
■충남문화재단 우수 레퍼토리 기획공연으로 오페라 ‘투란도트’가 충남도청 문예회관 무대에 오른다. 세계 4대 걸작 오페라로 손꼽히는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 작품으로 그의 천부적인 예술성과 음악적 기량이 모두 녹여있는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1644-9289

### 박애리·팝핀현준의 특별한 국악콘서트

■일시 : 6월 27일  
■젊은 국악인 박애리와 비보잉의 대가 팝핀현준이 함께 꾸미는 특별한 국악콘서트. 국악인 김준수, 김민정, 이



미리와 퓨전국악밴드 ‘초이스 뮤직’, 전통연희단 ‘꼭두쇠’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국악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장소 :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 041-661-8031

### 노재석 조각 전시회

■일시 : ~ 7월 31일  
■작가는 가장 순수한 재료인 돌을 주재료로 활용해 자연과 문명의 상징적 표현을 드로잉의 선처럼 새기고 깎아낸다. 자연에서 찾아낸 돌덩어리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내적인 생명에 대한 신비와 자연의 생성-소멸이 들어있다.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 발표되는 작가의 작품에선 돌의 원 형태(mass)를 살려 대지를 표현한 곡선의 유연함을 볼 수 있다.  
■장소 :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작품명 : 용봉산의 여름

## 그림으로 떠나는 여름으로 가는 용봉산 충남여행스케치

용봉산은 흥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산 전체가 바위산으로 기이한 절경을 보여줘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린다. 이름은 용의 몸집에 봉황의 머리를 얹은 듯한 형상에서 유래됐다.

해마다 봄의 끝자락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스케치 하러 찾아가곤 했는데 울적마다 색다르다.

정상에 오르면 예당평야와 수덕사를 품은 예산 덕수산, 서산 가야산을 조망할 수 있다. 산 전체가 바위산으로 중턱에 오르면 백제시대의 고찰 용봉사와 고려시대 불상인 흥성신경리 마애석불, 미륵석불 등의 문화재가 있고 예산군 덕산면에는 물 좋기로 유명한 덕산 온천이 있다.

용봉산은 바위와 소나무가 많아 그 어울림이 멋스럽고 특히 곳곳에 빼어난 바위가 어우러져 동양화의 화폭을 연상시킨다. 그 매력에 해마다 용봉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멀리 보이는 용봉산 자락과 기암괴석 소나무들과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을 화폭에 담아 보았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욱

## 충남도민 동물사랑 사진공모

■일시 : 6월 22일~7월 7일  
■다양한 구성원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리 사회를 위한 사진전시회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 hscats2015@naver.com  
■내용 : 최소한 동물, 사람 둘 이상을 포함한 사진  
■문의 : 010-4165-3329(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 한국형 '빈집쇼크'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 내포칼럼



진 종 현  
공주대학교 교수

2015년 기준 100만 가구 넘어  
2050년엔 300만 가구 달할 것  
충남 빈집 전국 세 번째 많아

도,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제정  
실태조사·활용·관리 방안 마련  
주거환경·치안·복지 등과 직결

임대주택, 빈집문제 해결 방안  
마을정원 등 주민공용시설 조성  
시·군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해야

일본사회의 빈집 쇼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침체와 함께 가시화된 빈집비율은,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에 16.9%를 기록하고, 2033년에는 30.4%라는 믿기 힘든 비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이 같은 빈집 쇼크가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선 빈집은 2050년에 전체 가구의 10%인 30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충남은 2018년 11월에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자율적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빈집 활용이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빈집 문제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심각하다. 2017년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충남의 빈집은 9만 2110채에 달한다. 서울 및 부산과 비슷한 수치이며, 인구가 6배 이상인 경기도가 19만4981채인 것을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인구대비로 볼 때 경북이나, 전남북 등의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빈집문제는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빈집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가? 빈집은 단지 집주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집은 공동체에 활기를 제공하는 기본 단위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마을과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방치된 빈집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마을의 슬럼화를 초래해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치안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사람이 떠난 빈집으로 인한 고통은 남아 있는 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빈집 문제는 주거복지의 문제와 연결되

어 있다. 그래서 빈집 문제는 위로는 국가와 광역지자체에서부터 아래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다.

빈집문제가 일본과 같은 빈집쇼크에 이르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는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형식은 '빈집뱅크'일수도 있고 '빈집정보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미 일본에서도 시도되었던 대안으로 현재 몇몇 지자체들이 도입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방식의 빈집활용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위한 수리비 등을 지원 하고 시세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주거비용과 빈집문제가 공존하는 우리 주거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장기간 방치되어 활용이 쉽지 않은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정원·쉼터나 주차장, 도시재생을 위한 앵커 시설 등의 주민공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마을공동체내의 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효과를 덤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마을공동체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창작공간-레지던시, 마을주민들을 위한 예술공방 등은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심장이 될 것이다. 충남에서는 장항이나 천안 등에서 이미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획을 진행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관시켜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대안들은 충남의 빈집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과 장치들이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본격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면도칼로 모기잡기

## 변평섭의 사랑방 이야기



전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장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 온 세 사람이 캠핑을 갔다.

밤이 되어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는데 모기가 웅하니 뚝고 들어 왔다. 맨 먼저 벌떡 일어난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그는 후닥닥 손바닥을 쳐서 모기를 잡았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모기가 들어와 전라도 사람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부채를 부쳐 모기를 쫓아 냈다. 그래도 모기가 들어와 웅 웅대자 이번에는 충청도 사람이 '앗다. 왜들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해유' 하더니 썩썩 면도칼을 잡아 어둠속에 날라드는 모기를 한 번에 내리 쳤다.

그러고는 한 마디 했다. "이제는

모기가 한마리도 없을 구만요"

과연 그로부터 모기 없이 편안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닥에 모기 머리가 많이 깔려 있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어떻게 그 조그만 모기를 향해 단번에 목을 칠 수 있을까? 황당한 우스갯 소리지만 그렇게 충청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빠르고 결단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코리아 특급'이라는 별명으로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 리그 신화를 창조한 박찬호 선수는 충청도 사람답게 맑은 느린 편이다.

그러나 그가 던지는 공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파워 커브를 구사하는 바람에 타자들이 쨍쨍 땀 수밖에 없었다.

IMF의 고통을 겪던 1998년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던 박세리가 미 LPGA에서 보여준 '맨발의 투혼' 역시 충청인의 기개를 보여 준 한 편의 드라마였다. 맑은 느리지만 행동은 빠르다는 우리 충청도의 기질이 우리 역사를 이끄는 주류가 되리라 믿는다.

# 상해 임시정부청사에 올린 독립군 아리랑

## 생생현장리포트



신 용 희  
금강산 대표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조왕 말년에 왜나라나니 이천만 동포들 살 길이 없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메고 일제놈 쳐부셔 조국을 찾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내 고향 산천아 너 잘 있거라 이내봄 독립군 떠나 가노니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부모님 처자들 이별을 하고서 왜놈을 짓부셔 승리한 후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태극기 휘날려 만세만세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위 노랫말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 아리랑' 전문이다. 이 '독립군 아리랑'이 6월 9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앞에서 공주소리꾼 이걸재와 공주아리랑 회원

들에 의해 불려졌다.

고향땅을 떠나 조국독립을 위해 일군과 싸웠던 독립군들의 한맺힌 절규와 피멍이 노랫말 곳곳에 스며든 노랫말을 공주아리랑 회원들은 조용하나 힘있게 불렀다. 관광객 왔던 관광객들이 경외의 눈길로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이곳에서의 집회나 현수막 등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원에 끌려갈 수도 있다. 기념관 안에서 노래는 커녕 사진 촬영도 금지돼 있다.

많이 불리는 아리랑이 3분박의 세마치 장단인데 반하여 '독립군 아리랑'은 4분의 2박자인 행진곡 형식을 띠었다. 그럼에도 행진곡풍의 '독립군 아리랑' 가락이 처연하게 들리는 것은 기자만의 느낌이었을까? 마지막 5절에서 이걸재 소리꾼은 특유의 한이 서린 탁음으로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를 외쳐 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불렀던 한국 관광객들과 일행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일제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상해, 이동을 거쳐 충칭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노력한 흔적들이 넓지 않은 기념관에 잘 전시되어 있었다. '독립군 아리랑' 노랫말은 백범 김구 선생이 지어 연변 조선족들 사이에 불려오던 것을 이십여 년 전 민속학자故 심우성 선생이 채록하여 이걸재 소리꾼에게로 이어졌다.

이걸재 소리꾼은 방명록에 "이제야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적었다.



중국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공주아리랑 회원들

# 충청유교의 형성, 서경덕과 이이

## 충남유교이야기⑧

### 충청유교의 정체성 1



충청우도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60호). 공암리는 서경덕의 제자인 서기의 유허가 남은 곳으로, 주자를 모신 사우로 건립되었다. 후에 이준오, 이목, 성제원, 서기, 조현,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을 배출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비롯된 학문·사상·종교체계다. 공자의 사상은 「논어」라는 책에 담겨져 전수되었고, 유학자들에게 「논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경전이 되었다. 그러나 유교는 & 「논어」의 사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방식으로 변화·계승·발전해 왔다. 유교는 인류역사를 거치며 시대적·지역적 특수성을 배합하여 변화해 왔던 것이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는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명맥이 끊긴 유학자의 맥을 다시 잇기 위해 그 이전의 경전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달했다. 불교 형이상학의 도전에 직면한 송대에는 이에 대항하여 철학적·이론적 체계를 갖춘 성리학이 대두되었다. 이윽고 그 성리학은 지역을 옮

겨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꽃을 피웠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온 힘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 더불어, 성리학의 학문체계를 이해해 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지역적 특성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 중기에 들어 학문은 무르익고, 서경덕·이황·이이·조식 등과 같은 걸출한 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론과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동시에 학문이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동이나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의 교통상황 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유교의 분화와 발전기 초기의 이 걸출한 유학자 중, 충청유교에 큰 영향을 끼친 학자가 있으니 바로 서경덕(徐敬德)과 이이(李珥)다. 그들은 충청의 인물은 아니다. 서경덕은 개성에서 태어났고, 이이는 강릉에서 태어나 과주와 해주에서 살았으니, 이들은 경기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적인 문인들이 충청 출신이었고, 이후 충청유교의 종장이 되었기에 가히 우리는 이들을 충청유교의 선구자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이 유학자들의 특징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지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치영 충남역사문화원 선임연구원



# 입으로 그리는 제2의 인생...“그림은 내 삶의 이유”

당진 구필(口筆)화가 박정 씨  
18살 수영장 사고로 전신 마비  
우연히 그린 그림서 소질 찾아

**[당진]**“매일 눈뜨고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빨리 꿈을 꾸고 싶었죠. 꿈속에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축구선수로 뛰었던 박정 씨(46)의 삶은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91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모두 마비됐다. 이후 치지를 비판하기만 했던 그의 삶에 의미가 되어 준 것은 그림과 그를 응원해주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어느 날 누나가 그리는 그림을 입에 붓을 물고 따라 그려봤습니다. 그때가 사고이후 처음으로 부모님이 기



자신의 작품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박정 화백

쁘게 웃은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 그림에 빠지고, 미대도 진학했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그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처음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박정 화가는 자신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점차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손이 아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입에서 붓을 놓지 않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각종 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며 실력도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주로 인물화를 그린다. 원

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사고 이후 집에 혼자만 있던 시간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고프름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 화가의 작품 속 인물은 정면과 옆, 뒷모습 등 다양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각 작품의 이야기와 분위기, 감정 전달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저도 앞모습을 많이 그렸는데요. 최근에는 뒷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정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표정과 눈빛이 보여서 감상하실 때 표정을 살피면서 감상의 틀에 갇히기 쉽지만 뒷모습일 때는 인물의 이야기나 분위기에 대한 감성이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기자가 직접 본 박정 화가의 작품은 입으로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인물의 표정, 눈빛, 분위기 하나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하루 평균 8~10시간을 몸이 버티주는 만큼 한 자리에서 작품에 몰두하는 박 화가는 유화의 특성상 여러 작품을 함께 진행한다. 한 작품마다 그가 들이는 열정은 미술용 세필(細筆)부터 미술용이 아닌 철물점의 커다란 붓까지 작품표현에 필요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입으로 물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그림으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그는 더 이상 괴로움을 잊기 위한 꿈꾸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면 전시회를 열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 기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화가가 아닌 여느 화가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는 박정 화가는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전시회 준비를 하는 화가로서의 생을 빛내고 있었다.

배창섭 / 당진신문  
(bcs7881@hanmail.net)

## 팔팔한 88세 요양보호사...비결은 꾸준한 관리

당진 요양보호사 김명수 씨  
아내 돌보기 위해 자격증 취득  
“통일돼 고향 황해도 가고 파”

**[당진]**88세의 나이에도 오로지 꿈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가 있다. 재가노인 요양보호사인 김명수 씨(사진)는 본인 또한 노인이면서 또 다른 노인 가정을 방문해 소·대변 처리부터 목욕, 은행업무, 쇼핑 등 크고 작은 일을 도우며, 노인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다.

김 씨는 이복사람이다. 황해도 해주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풍족하게 자랐다. 당시 집이 세 채나 있었고, 땅도 많았다.

꿈을 펼치기도 전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19세의 나이에 참전했고, 전남 영광까지 내려왔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하면서 공비도별작전에 참여했다. 이후 신탄진파출소장, 서울특별시 경찰국 강력반장 등으로 일



했다. 그렇게 경찰생활만 30년을 했다. 그가 당진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충남 공주 출신의 아내를 대전에서 만나 1년 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냉전시대, 이복 출신이라 아무도 김 씨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오직 아내만이 김 씨를 안아줬다. 그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당진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3년 간 투병했지만 결국 혈관성 치매로 7년을 앓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아내 때문이다. 아내를 직접 돌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3년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그는 “내가 간호했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산 것”이라며 “햇수로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못다 이룬 김 씨의 꿈은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 씨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는 “빨리 통일이 돼 내 고향 황해도 해주로 가고 싶다”며 “내 가족이 살던 집에 다시 가고 싶어 건강도 챙기고 돈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몸과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88세인데도 여전히 소리가 잘 들리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축출할 수 있어 행복하죠. 또한 이제는 사회에, 좀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어 기뻐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건강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김예나 / 당진시대  
yena0808@hanmail.net

## 모루 ‘김홍신’ 논산 문학관 개관

집필관·서고·전시관 갖춰  
작가들 창작공간으로 제공

**[논산]**에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김홍신이 동지를 들었다.

지난 8일 (재)홍상문화재단(이사장 김홍신·사진) 주관으로 열린 김홍신 문학관 개관식에는 김홍신 이사장을 비롯, 남상원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주요 내빈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개관을 축하했다.

394.53㎡(120평)의 집필관과 1210㎡(366평)규모로 조성된 김홍신 문학관은 작가의 방, 서고, 상설전시실, 북카페, 아카이브존(종합자료실), 열린 극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집필관은 작가들의 창작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논산에서 성장한 김홍신 작가는 장편소설 ‘인간시장’이 대한민국 최초 백만 부를 돌파해 밀리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7년의 자료수집과 집필과정을 거쳐 탄생한 ‘김홍신의 대발해’는 그에게 통일문화대상, 현대



불교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

다양한 인간의 삶을 모티브로 한 그의 작품은 비틀린 사회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 속에서 해학과 풍자를 함께 담아내, 독자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파랑새 역할을 해왔다.

김홍신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너무 좋으면 사람이 멍청해 진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나 멍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에 겨운 작가입니다”라며 “모루라는 호처럼 글로 받침돌이 되고 후배 문인 양성을 통한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 공금학원 세워 가난한 아동·여성 교육 앞장

충남의 여성독립운동가

⑦노마리아(1897~1982)

유관순 사촌오빠와 결혼

아우내장터 3·1운동 동참

유관순 가문에는 유관순의 숙부 유중무의 며느리이며 독립운동가 유제경의 어머니 노마리아(盧馬利亞, 1897~1982)가 있다.

노마리아는 공주에서 1897년 부친 노명수(盧明洙) 모친 백정화(白貞和) 권사 사이에 누님독녀로 태어났다. 1913년 공주 영명중학교를 제1회로 졸업했으며 1914년 계룡면 경전 원명학교 교사를 지내며 유관순의 사촌

오빠 유경석과 결혼했다.

노마리아의 활동상은 그의 육성증언으로 전한다. 1974년의 구술에 의하면 아우내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유관순이 “형님은 애기가 있고 가정부인이니까 나가시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가정부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발휘할 수 없느냐?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서, 아침을 부지런히 먹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애기 손을 잡고 나갔어. 장터를 갈려면 관순네 집을 지나야 가. 관순네 집에 가니까 동네 여자라는 여자는 다 모였어. 그런데 조병옥 박사 어머니가 아이고 아이 애미 어찌 얼굴이 이렇게 부었느냐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니, 어디 보자고 하더

니 이쪽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큰일 났다고, 물린 자국도 없고 부었으니 틀림없는 풍단이라고, 바람 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약 바르고 하라고, 내가 풍단 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앓은 일이 있어서 놀랐거든. 무서워, 무서워서 장터로 안나가고 집으로 들어갔어.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조박사네 집으로 들어가서 고추장 매주 쑤었으니 방이 뜨거우니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새우젓국을 바르라고 하더라고. 들어가서 젓국을 바르고 점심을 차려줘서 먹고 있으니,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 부르는 소리가 이쪽 산 너머까지 우렁차게 나와. 그래서 당시 마음이 들떠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박사 제수하고 그 이도 애기를 업고,



1919년 만세운동 이후 체포되어 이동 중인 시민들.

나도 애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어”라고 했다.

3·1운동 후 노마리아는 1920년에 공주 금정(錦町, 현재 교동)에 있는 야학 공금학원(公錦學院)을 세워 운영하며 공주 일대에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동들과 문맹 청년과 부인들에게 한글 감습과 함께 교육을 행하고 기독교를 전파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공주군 애국

부인회 회장, 독축 중앙협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1947년에 국립경찰전문학교 졸업하고 1949년 경북 경찰국 소속의 대구여자경찰서장에 선임됐다. 1952년 대구여자경찰서 경감을 역임하다 1953년에 퇴임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명화 도산학회 회장  
(충남 여성문화사 총서11)

# “언어의 마을처럼 후손이 돌아오는 마을로”...스톤빌리지를 꿈꾸다

## 더 행복한 마을 ⑬

### 예산 봉산면 사석리

무궁무진한 마을자원 돌덩이

‘돌담’ 통해 예술로 재탄생

경관 가꾼 후 생태 복원 ‘역점’

“사람과 함께하는 생태” 한뜻

행복마을 콘테스트 도전장 내고

마을학교 이어 수익사업 계획



예술작품으로 거듭난 마을 돌담의 모습



신현욱 위원장과 장동욱 이장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沙石里)는 마을 이름 그대로 돌이 지천으로 널린 마을이다. 밭을 가꾸거나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파면 상상 이상의 돌무더기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부터 마을이장을 맡은 장동욱(60) 씨와 마을추진위원장 신현욱(43) 씨는 이 돌무더기를 활용해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 다 사석리에서 나고 자라 마을의 역사와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 봐온 터, 특히 오랫동안 청년회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맡으며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 온 장 이장은 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피’

를 수혈 받아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그간 마을은 꽃길을 가꾸고 돌담을 쌓아 경관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산으로 가는 등산로 정비를 이뤘다. 또한 지난 5년간 행복경로당 사업 지원을 받아 주1회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3전 4기 끝에 도량살리기 사업에도 선정돼 마을 내 양지골도랑의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버려지는 돌을 활용한 돌담 쌓기는 마을에 ‘스톤빌리지’란 정체성을 부여해줬을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돌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마을 경관을 빛내는 효과까지 얻었다.

“밭을 고르면 돌이 상상 이상으로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돌이 워낙 많다보니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돌담과 돌담을 쌓아 왔어요. 그 재능을 발휘 하셔서 직접 예술 작품화할 수 있으니 더 추진력을 얻었지요.”

신 위원장의 말이다. 지금까지 쌓은 돌담은 100기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앞으로 마을에선 돌담 스트리트 조성 및 1가구 1돌담 쌓기 등을 통해 교통과 농사에 방해되지 않는 공유 지역에 지속적으로 탐을 늘려갈 계획이다.

마을은 지난해 행복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을 끝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지를 발간하고 사진

전을 개최했다. 마을의 어르신인 이 흥원 씨가 수년 전 마을지 발간을 위해 모아둔 자료가 기초가 됐고, 각 가구마다 출가한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며 마을의 현재를 기록했다. 사석리 마을은 과거의 기억과 보존 못지않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마을이 하는 일을 후손과 출향인에게 알리고자 마을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

신 위원장은 올해의 목표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완성하는 것으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진행 중인 도량살리기 사업을 잘 마치고, 향후 추진될 사업이 선정 되면 계획대로 잘 꾸려나가

는 게 목표예요. 장기적으로 시설이 낡고 비좁은 마을회관을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 새로 짓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구해 보려고 해요. 농촌 특성을 살린 숙박시설과 로컬푸드판매장 마련, 100억이 투입될 효고천 생태하천 복원을 성공적으로 이뤄야죠.”

생업을 꾸려가는 와중에 마을 일을 맡아 언제나 분주하지만, 장 이장과 신 위원장은 주민들의 웃음과 격려 속에 보람을 얻는다.

“지난해 행복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지를 발간해 기념회와 마을 사진전을 열었어요. 우리 마을에 군수님과 군의원님 등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때, 틈틈이 마을지를 들여다보며 보람 있어 하실 때 참 행복합니다.”

마을 주민 한 명 한명의 행복이 모여 행복마을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신 위원장의 바람과 리더로서 행복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에게 행복만 드리려 한다는 장 이장의 말에서 마을의 미래를 엿본다. 올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빛날 사석리의 약진이 더욱 기대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 예산사과 20년 뒤 사라진다?

기후변화 탓 전멸 우려

충남연구 “신품종 도입 필요”

**[예산]**기후변화로 앞으로 20년 후면 예산 특산물인 사과 재배지가 사라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산군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충남도 기준 사과 재배적지는 2010

년대 2만5763ha에서 2050년에는 재배지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이인희 연구원은 이날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평가’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폭염 및 가뭄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온열질환, 용수공급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예산군의 경우 점차 동서경계 고지대지역에 분포한 뒤 2041년 이후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며 “농작물에 새로운 재배기술과 신품종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진화하는 안심 케어도시 예산’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조직과 협업체계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군 자문위원인 한서대 이영신 교수는 “평균기온이 1도 올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 충청 선비 조현의 의병활동

새로 배우는 충남學 ⑪

조선시대엔 선비가 상소를 올리며 도끼를 등에 메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봉 조현과 면암 최익현의 경우다.

조현은 1591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하는 소위 정명가도를 내세웠을 때 옥전에서 상경, 지부 상소로 대궐문 밖에서 3일간 일본사신의 목을 벨 것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6년 2월 면암 최익현은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타나 지부상소를 올렸다.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한 일본 사신 구로다 교타카의 목을 베라고 상소하면서 도끼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도끼를 들고 상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조현의 고사로부터 270여 년이 지난 때에 다시 최익현이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한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며 지부상소를 한 것이다.

조현은 일찍이 율곡 이이와 성혼 우계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조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홍주목과 공주목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보은 현감으로 재직하며 주변의 으뜸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관리였다. 하지만 그는 강직함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유배에 처하는 고초를 겪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현은 옥전에서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전쟁에 나섰다. 조현은 8월 1일 서산대사의 제자인 영규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했다. 패전으로 지지멸렬하던 관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승리였다. 조현은 전라도로 침입하는 왜군을 맞아 싸우기로 했으나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 당하고 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향한다. 조현은 영규의 승군과 합세해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와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를 숭모해 금산 칠백의 충(사신)이 세워졌다.

/이명우 (재)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남학 강사

## 서천 서래야 블루베리 인기

**[서천]**서래야를 품은 마산면의 특산물 블루베리가 올해도 대박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한 블루베리는 1kg당 2만2000원 선에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농협안성물류센터를 비롯해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VIC마켓 등에서 인기 품목이다.

특히 30여개 농가가 참여중인 마산공선출하회는 올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120톤의 수확량을 목표로 회원들

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장가격은 다소 하락했지만 참여농가가 늘고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 21억9800원 보다 많은 23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서천산 블루베리가 마산농민들의 주요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며 고가에 판매되는 이유는 전국에서 무농약 재배와 특품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루베리 재배농민 지인성씨는 “하



우스 대체작물로 블루베리를 육성하면서 마산만의 색깔 있는 농업을 담아내고 있다”며 “품질 좋은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서천신문  
kh3430@naver.com

## 백제 사비 돌방무덤 확인

부여 능안골고분군 발굴

**[부여]**부여 능안골고분군(사적 제420호) 발굴조사 결과 백제 사비시대 돌방무덤과 봉분 일부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총 5기의 백제

사비기 무덤이 확인됐다. 그 중 잔존 상태가 양호한 무덤의 구조는 현실(玄室)과 연도(羨道), 묘도(墓道)로 이루어진 횡혈식석실묘(橫穴式石室墓, 굴식돌방무덤) 2기와 현실(玄室)과 묘도(墓道)로 이루어진 횡구식석실묘(橫

式石室墓, 앞트기식돌방무덤) 1기이다. 현실 내부에서는 금동제이식, 철제 관못과 관고리가 출토되었다.

이번 능안골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기 귀족층의 다양한 무덤 구조와 축조순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무덤 영역 내 대지 및 봉토 조성 방식을 확인했다.

/부여군 제공





# 초생활권시다...이웃끼리 뭉쳐야 뜬다

### 각자도생으론 한계 인식 생활권 결속 현안 해결 불뭉

경계를 맞대며 생활권이 같은 지역끼리 협력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공동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뭉뚱 뭉치고 있다. 각자도생 방식으로 문제극 극복하기 보다는 불뭉을 키워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천안·아산생활권협

#### 철도 정차역 유치 한목소리

아산과 천안시가 공동생활권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다.

지난 5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상반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양 시는 공동생활권내 미세먼지 등 올해 주요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시는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실질적 공동 대응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과 주요 대

중교통 승강장에 미세먼지 안전존을 시범 설치, 문화예술단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구성된 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48건의 안건을 합의하며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평택~오송 간 복복선 건설사업' 구간에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위한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31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

#### 시설요금 할인·생활SOC 발굴

공주시와 부여·청양군은 지난 달 생활권협의회를 열고 나래원 이용료 할인과 백제생활권 관광지 공동이용 등 다양한 주민편의 증진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모두 석장리 박물관, 칠갑산자연휴양림 등 10여 곳의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과 칠갑산천문대, 오토캠핑장 등 2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개 지자체는 생활SOC사업, 시군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복지,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다양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에 2014년, 2015년 2년 연속(전국최초) 선정됐으며, 2017년 지역생활권선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 ◇6개 시·군 환황해권행정협

#### 서산민항 공동건의원문 채택

보령과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충남지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환황해권행정협의회'는 지난 4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도에 하늘 길이 놓이길 212만 도민은 간절히 바란다"며 "공공 비행단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민항기가 유치된다면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신문팀

# U-20 월드컵 철벽방어 예산 출신 GK 이광연 빛났다

**[예산]** 예산출신 축구선수가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예산중앙초등학교 재학시절 그 재능이 처음 발견됐고, 그의 축구인생이 시작됐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8강에서 짜릿한 승리에 이어 4강에서도 드라마를 쓰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광연은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에 교체 없이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슈트를 쳐내며 골문을 지켰다.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함께해 온 선후배, 동료들과 같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다. 함께 힘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 같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예산중앙초 재학시절 기억은 "축구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다. 숙소엔 수많은 공과 축구용품이 있었는데 참 신기했다. 이것들을 다 잘 수 있고 신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운동 끝나고 외출을 받으면 읍내 분식집에 들러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피시방에서 즐겁게 게임했던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가족과 고향 군민들께 한마디. "부모님과 할머니, 고모, 고모부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한다고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의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제 고향이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 "충남 혁신도시 지정하라"

### 홍성군, 서명 6만명 돌파

**[홍성]** 홍성군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지난 두 달 반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6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민 10만 명의 6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애초 목표인 6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대전, 충남 시군에서도 서명운동이 확산 중에 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기류로 전환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구와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의 무채용제도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서명부를 충남도와 협의해 국회, 청와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정책에서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배제돼 혁신도시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역차별 상황을 맞고 있다.

/홍성군 제공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개장** [서산] 유아들의 힐링공간인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이 개장됐다. 계절별, 주제별로 곤충, 낙엽, 가지, 꽃 등과 함께 자연속에서 놀거리를 찾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숲속 생태관찰, 식물과 곤충탐구,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춘산 숲을 찾은 어린이들이 해설사의 숲속생태 설명을 듣는 모습. /서산시 제공

# 무령왕 서거 1496주기 대제

### 일본서는 탄생제 열려

**[공주]** 공주시는 지난 9일 송덕전에서 무령대왕 서거 1496주기 대제 봉행행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됐다.

공주에서 열린 대제에는 공주유림과 시민,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고증과 재현을 거친 흥기와 축문, 진설도, 제례무, 제례악 등이 경건하게 진행됐다. 제례 흥기는

일반 관람객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1일 제18회 무령왕탄생제가 일본 가라츠(唐津) 가카라시마(加唐島) 현지에서 개최됐다.

무령대왕은 백제 25대왕으로 재위한 23년 동안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왕권강화와 대내·외적으로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회복, 주변국가와의 외교정책을 강화한 웅진백제의 상징인



조관행 공주시 문화관광과장이 가라츠시 미네 시장에게 김정섭 공주시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왕이다.

신용희/금강뉴스  
s-yh50@hanmail.net



# 춘장대해수욕장 내달 6일 개장

### 잔잔한 파도와 해송 절묘

**[서천]** 다음 달 6일 개장하는 서천군을 대표하는 춘장대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푸른 해송으로 둘러싸인 춘장대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파도가 잔잔해 가족이 즐기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춰 2016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꼽히기도 했다. 서천군은 "대한민국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춘장대해수욕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서천신문사  
news2358@hanmail.net

# 계룡산 찾아온 '호반새'

### 동학사 등 '호르르' 울음

**[계룡]** 계룡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여름철새이자 계룡산 깃대종인 호반새(사진)가 찾아왔다.

파랑새목 물총새과의 호반새는 일본, 중국 동북부 등지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에 찾아와 9월 말까지 남부 도서지방이나 내륙의 숲이 우

거진 곳에 둥지를 틀어 서식하는 환경지표종이다.

암컷과 수컷 모두 몸 길이는 27cm이고, 붉고 긴 부리에 몸 전체가 적갈색을 띠고 있어 겉보기로는 구별이 어렵다.

6, 7월에 활발한 먹이활동과 번식기간을 갖기 때문에 자주 관찰되는데, 계룡산에서는 동학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 야영장 일원에서 '호로로로' 하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임동숙/금강뉴스  
ydsrosa@naver.com



# 충남도·교육행정 추진 상황 ‘송곳 점검’

25일까지 제312회 정례회 열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등  
38개 도정 과제 및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제 312회 정례회를 열고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8개 주요 도정 과제 및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5분 정책발언, 현장방문 등을 예고했다. 이번 도정질의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37건(도정 28, 교육행정 9)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사안 등에 대해 ‘송곳질’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선영 의원이 충남의 아동 의료 복지 정책을, 김연 의원은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질의한다. 김옥숙 의원은 충남도 실정에 맞는 고령화 대응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장승재 의원의 경우 양승조 충남지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는

다. 안장현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환경 구축영역에 관하여, 여운영 의원은 도립미술관 건립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합(김득응 의원) ▲도민이 내는 교육세,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 발굴 필요(김명숙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한일 의원) ▲충남밀 개발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양금봉 의원)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정광섭 의원) ▲공주KTX역 활성화 추진(김동일 의원)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조철기 의원) ▲충청남도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홍기후 의원) 등이 예고됐다.

또한, 도의회는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과 삼일위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9일 충남산학융합원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18~19일 제주지역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신서천 화력발전소, 당진 통합 RPC, 기업방문(비츠로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8~19일 지방도365호 공사현장, 계룡소방서 신축 청사 공사현장, 국방대 진입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현장,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현장,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도내 마을학교 및 초·중학교 등을 방문, 교육 일선 현장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

유병국 의장은 “형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에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희생자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선박사고 안전대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우리도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 친일 잔재 청산 특위 설치

표준영정 지지 철회 등 추진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영권 의원(아산1)이 충남도내 일제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친일 잔재는 교육 현장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특히, “친일화기에 의해 그려진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의 지정 철회를 추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를 추진한다.

## 의정토론회

### 태안 관광레저형 도시 조성 촉구

홍재표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태안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계획보다 부진함에 따라, 그 조속한 추진과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어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 교수위원, 김나희 충북도립대학교 호텔관광외식과 교수, 강봉수 현대도시개발 사업개발 실장, 고준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장경후 태안군 도시재생과장 등 학자, 시행업체,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



영실장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조성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기대감 상실,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경우 개발 효과 등을 제시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제반 사정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태안을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한다”면서, “조속한 도시조성이야말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보육료 현실화 ‘실효성’ 높인다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여운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의원·아산2)의 신청으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운영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연 의원(천안7)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현재의 보육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박정애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라는 주제를 통해 인건비 지원의 허와 실에 대해 말했다.



이어 ▲장찬우 굿모닝충청 청남취재본부장은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장희선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손유경 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여운영 의원은 “이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 도시재생 최적 방안 찾는다

김명선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당진시 해나루(3층)에서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민·관이 함께 당진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지속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명선 의원이 좌장을, 임준홍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김흥태 URI미래전략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안정희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명기 당진시 건설도시국장, 김두기 충청남도 도시재생팀장, 김충완 당진1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



쟁력 확보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청남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트라우마센터 설립 방안 모색

김연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에서 김연(천안7) 의원 요청으로 ‘충청남도 트라우마센터 설립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심리적 외상으로 PTSD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다, 충남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인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심리적 외상에 노출 빈도가 높은 도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충남형 트라우마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송근창



한국사레관리학회 이사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김종욱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안전보건팀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재하 (사)충남장애인 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부모 심리지원에 대하여, 진종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치료에 대하여,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충남 트라우마센터 설립 방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했다.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 및 제안

## KTX 공주역 연계 교통망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공주1)은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KTX공주역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X공주역이 개통 4년을 맞은 지금 연계교통망 부족으로 발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입도로가 선형개량도 하지 않아 상태가 불량하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도지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KTX역 활성화는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항에도 있는 내용이며, KTX 공주역 활성화는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균형있는



김동일 의원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기초학력 및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 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이 공교육을 통해 제공되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공교육을 통한 기본 지식습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충남지역에 환원하여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충남도립미술관, 내포 랜드마크로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11일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립미술관 건립 방향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였다.

여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지난 달 제주도 분태미술관과 일본 도쿄 신미술관 등을 직접 방문한 후, 충남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미국 뉴욕 뉴뮤지엄, 스위스 바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지주미술관, 일본 도쿄 국립신미술관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대중들이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그 자체를 향유하고 미술관 자체가 커다란 미술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현대 미술관의 가장 큰 변화



여운영 의원

중에 하나는 미술관이 단순한 작품보관소로서의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술창작의 장소로 거듭나도 있다”며 일본 오다이바의 팀랩 미술관처럼 도내에도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이 건립되길 제안했다.

여 의원은 “충남도립미술관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서 도민은 물론이고 내외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충남과 내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 건립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아동부터 무상의료 시작해야”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은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내 18세 이하 대상으로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의 일부 및 정신보건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사업 등 일부밖에 해당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하



이선영 의원

며 “적어도 대한민국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은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종사자의 교체 등으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계획 점검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19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된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 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개별구성에서도 임기 내·후의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며, “체계적인 공약 이행 관리를 통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의원

또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공약이행계획 수립 시 상황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하지만 일선학교의 반응과 수요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수요 확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공약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외화내빈(外華內貧) 결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 밀 종자 개발 브랜드화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이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충남 밀 산업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충남 밀 확대 생산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에 적합한 밀 생산과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을 연계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안정적 소비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충남 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등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국민 제2주식인 밀은 지난 ‘16년 통계에 의해 국내공급량이 467만2000톤 중 417



양금봉 의원

만9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입 밀은 수입 쌀보다 제초제(글리포세이트)가 100배나 많은 기준으로 수입이 허용 된다”고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양 의원은 또 “충남 밀 브랜드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재배 생산 장려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내 밀 시장 선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 위치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우리 밀을 사용하고 있다”며 “같은 값이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충남 밀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촌지역에 산촌유학센터 설립

김명숙 의원(청양)은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발굴 및 도민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30~40대의 젊은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나 인근도시로 떠남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내에는 학생수 50명이 하의 소규모 학교가 120개 초등학교, 45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젊은 가정이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도시지역 학생들이 한학기 이상 농촌, 산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김명숙 의원

야 한다고”언급했다.

또한 “도시지역 학교시설 등 도시지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도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는 매년 평균 25억원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며 “농어촌지역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에 소극적이었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개 시·군 중 정구대학교와 충남도·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 서천, 부여, 금산, 태안 등의 도민은 타지역에 비해 평생교육의 혜택이 적다”며 “주변지역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 할 수 있게끔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건고 기숙사 논란 해법 찾아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숙사 폐쇄 문제로 학사일정 조정 등의 차질을 빚고 있는 논산 대건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밖 기숙사 매입을 놓고 불거진 문제로 당장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학교 측은 물론 도교육청 및 자치단체(논산시) 등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300여명이 넘는 학교 밖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수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떤 경우 에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기숙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일부 기숙사 폐쇄 문제로 학부 모 반발이 이어지는 등 학교 안팎으로 문제가



오인철 의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학교 측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숙사 신축 등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건고는 학교 밖 개인 건물을 빌려 기숙사 3개 동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측과 기숙사 임대인은 학교 밖 기숙사 3개 동 매입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부 기숙사동 폐쇄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300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자 학교 측은 학교 밖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한 상태다.

## 대산공단 사고 대응 부적절 질타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은 지난 5월 17일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충청남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합동조사단은 6월 3일 중간발표를 통해 스틸렌모노머(90%)와 에틸벤젠, 알파메틸스티렌,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 등이 약 97.5톤(1차 94.1톤, 2차 34톤, 폼소화제 포함)이 유출과 총 2330건(‘19. 5. 29 기준)의 진료기록이 있었다며 그 사고 규모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한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안이한 충남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재해 안전이론을 바탕으로



장승재 의원

현실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지사 부재 시 재난대응시스템의 미작동, ▲실시간 상황판단회의 실패,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미실시, ▲상황 종료 후 뒤늦은 지휘부의 현장 방문에 대하여 꼬집었다.

장 의원은 “화학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판단되길 바란다”며 대응책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제312회 정례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사

### 남부지역에 도립 화장장 설치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남부지역 도립 화장장 및 국립 호국원 설치 등을 통한 충남 장례문화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화장장 부족으로 충남 남부지역 도민들이 상례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화장장은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선 정책으로 남부지역 도민들은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부지역 도민들의 상례에 불편함



오인환 의원

이 없도록 충청남도 남부지역 도립 화장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오 의원은 국립 호국원의 충남지역 설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권에는 현재 호국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운봉길의사, 김좌진장군을 비롯하여 항일운동시기부터 충절의 대표지역은 충남”이라고 말하며, “6.25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가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 당진 철강단지 대기측정기구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1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 철강 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선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최근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0년부터 당진 1철강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입주 30년된 현대제철(주) 석탄, 코크스 등 고행에너지 최다 소비사업장으로 초



김명선 의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언급했다.

김명선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와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이 밀집가동 중에 있는 충남 서북부의 중심인 당진지역에 상시 감시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간곡히 요구하고 “기만한 대응과 엄격한 측정관리로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민행정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충남 방문의 해’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31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충남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은 경제 활성화 효과 높아, IMF극복에도 일조를 했으며,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 유발효과가 14%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과 올해에 걸쳐 대전·전북·전



조승만 의원

남 등이 자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이에 맞서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시작으로 내년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고 2020년은 계룡에서 세계 軍문화 엑스포를, 2022년에는 보령에서 세계 머드 박람회와 도청 이전 10주년 행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도 21호선 정체 해소방안 제안

한영신 의원(천안2)은 지난 10일 제31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정체구간의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 의원은 천안시민뿐 아니라 천안을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천안 나들목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우회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도 21호선 천안 남부대로 부근은 1일 약 7만여대가 통행, 천안시 남부대로 새말사거리 부근과 아산시 배방역 사거리 부근에서 상시 정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량 증가로 정체 구간의 해소방안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한영신 의원

한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이며, 1일 평균 교통량이 많은 천안의 교통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대전국토관리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도 21호선 정체구간에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천안 나들목 주변은 우회로 또는 지하차도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 키운다

충남도의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안정현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12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회의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 관련 활동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협조



안정현 의원

및 활동이 우수하거나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안정현 의원은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본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습조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내 학교의 도서실과 컴퓨터실 운영이 학교별 편차가 심함을 지적하면서 2020년에는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안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 건설근로자 교육·복지 지원

충남도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 ▲시행 조항 및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사항 이행 등



이계양 의원

도의 책무 규정 및 평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또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해양산업 육성사업 실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다양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통장 연합회 지원사업 확대

충남도의회가 이·통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이·통장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나선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통장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져 실질적 주민자치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이영우 의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통장 중심의 역할수행을 강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타 시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했다. 또 재정적 지원조항을 마련하면서 연합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견제조항을 두어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 학교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생복지 증진과 학교협동조합 운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까다로운 절차와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발의됐다.



조철기 의원

학교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홍보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조 의원은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며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충남소방헬기 추가 도입 건의

장승재·김형도 의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서산1)과 김형도 의원(논산2)이 지난 5일 정문호 소방청장을 만나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달 17일 김형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 발의 후 충남의 현실을 피력하고 2022년 소방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승재 위원장과 김형도 의원은 충남의



김형도 의원

지리적 특성과 소방항공 수요의 증가 등 소방헬기 추가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대의 소방헬기 운용 상 문제점인 기체 노후화 및 정비일 수 증가로 소방헬기 가동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을 비롯해 대형화 되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소방력 투입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헬

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꼽았다. 장승재 위원장은 “청양에 소방항공대, 충청소방학교,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가 위치한 소방복합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도 의원은 “충남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타 시·도에서는 2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하여 연간 발생하는 검사 및 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 충남 농가소득 급증 결실 맺은 3농정책

충남도의 '3농정책'이 도내 농림어가의 소득증가를 이끌며 대한민국 농정의 표준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농가소득의 증가다. 지난 2011년 3014만 원으로 9위에 그쳤던 충남의 농가소득은 지난해 4351만 원으로 증가하며 전국 4위로 올라섰다. 농림어업 지역 내 총생산액(GRDP)도 2017년 기준 4조 5328억 원으로, 2010년 3조 6600억 원에 비해 8728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농림어업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2017년 3370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3농정책의 핵심은 '농민이 주체가 된 거버넌스형 추진 체계 구축', '생산·유통·소비 과정 통합·정비' 두 가지다.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해 추진 중인 3농정책의 핵심 성과를 소개한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농가소득 전국 상위권 진입

농가소득 '17년' 전국 7위 → '18년' 4위(3단계 상승)  
▶ 농가소득액 43,510천원, 전국평균(42,066천원)보다 144만원 높음  
- '13) 32,038천원 → '18) 43,510천원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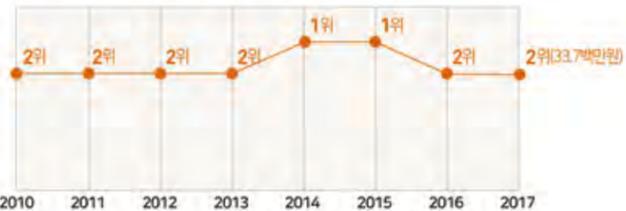
## 농림어업 GRDP 전국최고

가구당 농림어업 지역내 총생산(GRDP) 전국1~2위

3농정책, 농림어업 GRDP 증가 견인

▶ 도내 전체 농림어업 총생산액 7년 만에 8,728억원 증가  
- '10) 3조 6,600억원 '17) 4조 5,328억원 (23.8% ↑)

### [가구당 농림어업 GRDP 순위]



### [농림어업 지역내 총생산(GRDP)]



## 농업법인수 121%, 매출액 106% 증가

7년 만에 법인수 2,392개 매출액 3조 2,932억 달성

▶ '10) 1,080개, 1조 5,910억원 → '17) 2,392개(121% ↑), 3조 2,932억원 (106% ↑)



## 축산농가 소득 4배 증가

축산농가 소득 '10년 대비 '18년 4.3배로 큰폭 상승

▶ 전국평균(9개 광역도) 보다 49% 높음

※ 2017년 축산농가 소득 → 전국 3위 가축사육두수(전국) → 돼지 1위, 젖소 2위, 한우우 3위



## 임가소득 전국 1~2위

임업농가 규모화·산재재배로 5년새 소득 1.4배 증가

'18) 임가소득 : 전국 평균) 3,450만원 → 충남) 4,973만원 (48.7% ↑)

▶ '특화 단지' : '10) 2단지 → '18) 65단지 (증 63단지)

▶ 재배 면적 : '10) 294ha → '18) 541ha (증 247ha)



## 어가소득 지속 증가

충남 어가소득 꾸준히 증가, '18년 어가당 4,900만원 초과

어가소득 : '10) 3,569만원 → '18) 4,902만원 (37%, 1,333만원 ↑)

